

# 광주시 '우후죽순' 상업지역 초고층 아파트 규제 나선다

상업시설 20% 이상으로 상향...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곧 공포  
2016년 이후 규모·고층화... 오피스텔+아파트 복합시설 난립  
건설업체 "아파트 지을 땅 없어 불가피... 지역경제 악영향" 반발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 서고 있는 주거용도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한 가운데 주택건설업 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건설업 계의 지속적인 수의 창출을 위해 광주의 도시공간에 주거용 고층 건축물만 들어 서도록 방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15일 상업지역 용도용역제 개선안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했으며, 조만간 조례구 직심의위원회 법적 심사, 시의회 의견 청 취 후 공포할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외에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즉 상업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때 주거용 외의 용 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 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주거용으로 이용 이 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준주택(주택법 포함)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상업지역에 순수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권장하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상업시설 면 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 을 의미한다. 시는 당초 지정 취지와는 달 리 상업지역에 범람하고 있는 초고층 아 파트에 대한 지역 각계의 문제제기가 이 어지자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개선안 을 추진해왔다. 이미 서울은 유사한 제 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광주와 비 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40건 에 대해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이후 들어서고 있는 주거복합건 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거복합건물은 2000 ~2015년까지는 평균 185세대, 평균 13.6층이었으나, 2016년 이후 평균 713 세대, 평균 33층(최대 48층)으로 규모 화, 초고층화되고 있다.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를 계속 신축하면서 택지가 부족 해지자 주택건설업체가 상업지역에 최고 40층을 넘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 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상업지역의 주 거화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오히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고, 상업지역에 과도한 주 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 관 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의 조치가 업 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신수의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인 데다 재개발·재건축은 단기간에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시설 규제는 업계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 라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검토하는 등 세 심한 배려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가 보다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아파 트로 채워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높다.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 사는 "광주 내외곽에 계속 들어서고 있는 고층, 초고층 아파트 및 주거복합시설이 고층 광주의 도시재생이나 도시 활력 제 고 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 해볼 시점"이라며 "미래 도시 공간 구성 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의 규제와 함 께 현저히 공공성이 높을 경우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 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 문대통령 "협치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

여야정 상설협의체 모두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오즈를 경제와 민 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 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설협의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려면 그때 그때의 정치현안과 입 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 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 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 다"며 "여러 국정 현안과 국정과제를 포함 해 국정에 대한 활발한 협회가 이뤄지고,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 대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함 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아세안 (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해외 순방 에 나선다. /임동욱 기자 tuim@

## "국토부,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전철화 추진 수용"

김영록 전남지사 밝혀

"관련 예산 기재부에 요구"

일반철로 건설 중인 남해안철도(목포 ~보성 구간)가 전철로 업그레이드돼 추 진될 지 주목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목포~보성 남 해안 철도의 전철화 동시 추진 사업을 국 토교통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는 이날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1월 정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토교통 부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 다"고 설명했다.  
남해안철도 순천~부산 구간은 이미 전철화가 완료됐지만, 목포~보성 구간 이 전철이 아닌 일반철로 건설 중이다. 전 남도는 목포~보성 구간이 전철화되지 않 으면 병목현상이 발생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며 전철로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김 지사는 "목포~보성 간 철도 전철화

가 완료되면 두 지역이 1시간 이내로 가 까워지고 여수·순천·광양권의 무안공항 접근성도 좋아져 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안공항의 항공정비산업 육성사업도 국토부에서 긍정적"이라며 "도 차원의 준비 작업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그동 안 경제성 등의 문제를 들어 부정적이었 던 기재부가 국토부의 요청을 수용할 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또 "광주-순천 경전선 고속 화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게 나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예 비타당성이 낮아도 일부 꼭 필요한 사업 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 는 전향적인 입장인 만큼 경전선 고속화 등 지역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내가 도시사라는 생각으로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하 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며 "한마음으로

몽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는 마음가짐 으로 모두가 한 팀을 이뤄 새천년 전남 발 전을 이끌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 산업 분야 육성도 강조 했다.  
김 지사는 "명랑대첩축제·남도음식문 화관·전차·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걱정이 많았던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도 29만여 관람객이 몰리면서 전남의 새 문 화 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전남을 관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찾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랜드마크적인 관광 프로 젝트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여수권은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목포를 중 심으로 한 서남권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 라며 "무안 해안, 신안 압해도, 목포와 해 남 오사야노 관광단지를 거쳐 여수까지 연결되는 해안 관광상품 안을 만들어 달 라"고 주문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결정 앞두고 토론회에 눈 쏠린다

찬반 양측 토론자 10명씩 추천

9일부터 1박 2일간 진행

시민참여단 결정 영향 촉각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 단 250명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종합토론 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투표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종합토론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5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최영태)에 따르면 현재 찬반 양측

의 토론자 10명씩 추천 작업을 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또 참관인단 운영과 프로그램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종합토론회는 오는 9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하며 토론회의 참관인단은 공론화위 원회 검증위원 2명과 건설 찬반 양측에서 추천한 3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한다. 또 검증위원 2명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시 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 여해 공론화 과정을 검증하게 된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참 관인단 등이 시민참여단을 개별적으로 접 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종합토론회 가운데 첫째 날은 시민 참여단 도착 모습과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을, 둘째 날은 폐회식과 귀가 모습을 언론 에 공개할 예정이다. 폐회식 이후 시민참여 단의 언론 인터뷰 시간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 프로그램 가운 데 오리엔테이션과 찬반 양측의 기조발언 등은 공론화위원회의 홈페이지와 광주시 페이스북(www.facebook.com/dodreamGJ)을 통해 생중계한다. 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투표는 10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팩**

##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증정(대표자1명) ※출발우 제공/예약시광주일보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중국	대만/동남아	일본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상해</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상해/장가계</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329,000원~</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상해/항주/주가가 4일,5일</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운항일 수요일 3박 4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토요일 4박 5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상해야경#동양의 베니스 #주가가 뱃놀이</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대만</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방콕</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다낭</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629,000원~</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대만/지우펀/야류 3일,4일</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운항일 월, 목, 금, 일요일 3박 4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수요일 2박 3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먹거리, 불가사리</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기타큐슈</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오사카</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496,000원~</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선택경비 있음</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운항일 토요일 3박 4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화요일 4박 5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지족은전 #캐넌시티</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상해/장가계</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1,290,000원~</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운항일 수요일 3박 4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토요일 4박 5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천하제일명산 #일식미조여행</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대만</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방콕</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다낭</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679,000원~</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방콕/파타야 5일,6일</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운항일 수, 목요일 3박 5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토, 일요일 4박 6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코끼리트레킹 #발미시지 #다이내믹 여행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기타큐슈</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오사카</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920,000원~</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b>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b></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현지저렴 가이드+기사경비 없음</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선택경비 있음</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운항일 월, 목, 일요일 3박 4일</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달안관광명령 #다양한 특식</div>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